VOICEYE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6 February
vol. 187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2 목차 / 점자로 말해요 – 졸업

03 시선집중 – 장애인부모동료상담이 주는 의미 / 권민주(한국장애인부모회 사업2팀 팀장)

04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을 보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06 인터뷰 –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수,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씨

08 포커스 – '내 안의 명인을 깨운다' 시각장애인이 만드는 '암전 콘서트'

09 함께 사는 이야기 – 마지막캔들 / 조원석(시각1급_관악구)

10 월드리포트 – 영국 40대 여성, 생체공학 눈 이식으로 시력 회복해
– 영국 안내견 미아, 시각장애인 주인 구하려다 칼에 맞아

11 뉴스앨범 – 양평 수미마을에서 겨울문화를 즐겨
– 2월 3일,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공청회 열려

12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점자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무리하고
빛나는 졸업장을 다는 2월이 왔습니다.

졸업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졸 업

읽기 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ㅍ]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이 주는 의미

권민주(한국장애인부모회 사업2팀 팀장)

장애인 가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매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장애인가정의 해체, 심지어는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자녀에 대한 부담감,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얻을 방법이 적고, 전문 상담가로부터 상담치료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선후배 장애인부모들이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장애인부모들이 장애로 인하여 갖게 되는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같은 아픔을 경험한 동료로서 이해하고 지지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동료상담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개입이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훈련받은 장애인 서로가 상호 협력한다는 점이며, 전문가가 아닌 동료상담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은 이들이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경험이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고, 전문가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동료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켜 실제로 임상전문가보다 준 전문가격인 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상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동료상담사양성교육을 들으며 장애인부모들은 본인부터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의 장애특성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상담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조금 더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통 속에서 흘러갔던 시간과 삶이 나와 내 아이에게도 안타까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동료 장애인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료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대체로 상담을 희망하는 장애인부모들은 아이가 장애진단을 받은 직후의 부모이거나 학령기가 되어 교육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자녀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불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이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학령기에 들어가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시 자녀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보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들은 본인들이 겪었던 초기충격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을 장애인부모들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은 먼저 경험을 해본 동료상담사가 아니라면 가족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을 하기도 하며 많은 장애인부모들이 안정을 찾아갔고 단 몇 번의 만남만으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령기에 들어가는 부모들에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진학 사이에서 고민할 때,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궁금할 때, 당사자가 아니면 몰랐을 정보를 전달받을 때 장애인부모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희망을 보았고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심리적ㆍ신체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에게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는 든든한 지지자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동료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장애인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2016년까지 진행 될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자리 잡아 위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에게 하나의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부모동료상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을 보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는 길을 가다 종종 안내견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쁘고 귀여운 안내견을 만나면 몇 가지 지켜야할 에티켓이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이 거부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내견은 1916년 전쟁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개설하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주로 셰퍼드나 리트리버 등 지능이 뛰어난 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 보호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안내견을 예쁘다고 함부로 만져선 안 됩니다. 안내견도 사람을 좋아하는 개이기 때문에 사람의 스킨십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내견이 자신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간혹 기특하고 예쁜 마음에 간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안내견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행동입니다. 안내견은 정해진 사료를 제 시간에 정량을 맞춰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안내견이 예쁘다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안내견의 사진을 찍는 것은 안내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에 안내견이 있다면 꼭 신호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개는 색맹이기 때문에 신호의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내견들은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때 '지금 가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이 옆에 있을 때에는 신호를 꼭 지켜주셔야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 극장 등 공공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있는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65마리 정도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있고 지방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 안내견과 동행한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수,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씨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지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수 오하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1월 1집 트로트앨범 '오하라의 행복한 이야기'를 발표한 오하라입니다. '오아야'라는 타이틀 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도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신 후 가수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각장애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30대 중반쯤 됐을 때였어요. 처음엔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안과에 갔죠. 시각장애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되고 있으니,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마 제가 시인이나 작가였더라면 그 당시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생각해도 말문이 턱 막힐 정도니까요.

어떤 계기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사실 어린시절부터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분들이 전국노래자랑에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오산시 편에 나가게 됐는데 운 좋게도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 때 이후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됐죠.

그렇군요.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뻐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뒤, 힘든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되니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때 생각했죠. '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을까?'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이 가끔 저에게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 행복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해 11월 정규 1집인 '오하라의 행복한 이야기'를 발매하셨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앨범 작업이라는 게 예정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녹음을 진행하면서 앨범이 늦어질수록 저는 애가 타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는데 오히려 주변 분들이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에 1집이 나올 수 있었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렇군요. 가수 활동을 하시는 데 가족이 많은 힘이 된다고 들었어요. 오하라 씨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자녀가 둘 있는데 언제나 친구 같은 딸은 공연 때 메이크업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면 속을 다 털어놓고 실컷 울 수 있기도 한 존재예요. 아들은 존재만으로 듬직한 마음이 들고요. 남편은 제 옆을 항상 지켜주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죠. 가족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가수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가수로써 거창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제 노래가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제 노래로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을 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가수로서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내 안의 명인을 깨운다’

시각장애인이 만드는 ‘암전 콘서트’

자신의 삶을 춤과 노래로 펼쳐내는 공연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배우와 함께하는 ‘춤추는 헬렌켈러’의 공연인데요.
어둠 속에서 감정을 어루만지는 ‘암전 콘서트’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촌공간 ‘서로’에서 시각장애인 무용수들이 만들어 가는 공연 ‘암전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15년 11월 초연 이후 전석매진 행렬과 함께 극찬을 받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시즌 두 번째 작품인데요. ‘내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 배우 3명과 사연 많은 연극배우 3인방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 춤, 노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암전 콘서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며 훌훌 털어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배우 개인의 독백들로 공연을 구성하였는데요. 배우 각자의 독백과 독백이 모여 소통을 이루고 그 소통이 다시 배우와 객석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배우 6명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칭한 공간 속에서 소리를 보고 움직임을 듣고 그 안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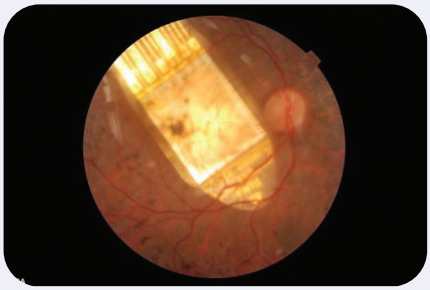
‘암전 콘서트’의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힐링이 됨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암전 콘서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춤추는 헬렌켈러’가 만들어 갈 공연이 기대됩니다.

마지막 캔들

| 조원석(시각1급_서울시 관악구)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랍을 열어 그 안의 무언가를 꺼내어 뚜껑을 돌려 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마지막 캔들'이라 부르는 아직 한 번도 불이 켜진 적 없는 가든스윗피 향 캔들이다.
이 가든스윗피 향 캔들은 예전에 한 커뮤니티의 멤버로 참여할 때 만든 캔들 중 하나로, 지난 해 이맘때쯤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거 특정한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 본래 사용 목적 이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괴로움이 지나쳤던 경험이 있어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일종의 원칙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캔들이 진짜 나의 '마지막 캔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고민 끝에 이번만은 그 원칙을 깨기로 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소중히 다루고 싶을 만큼,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괴로움의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는 '예측 가능하여 더욱 두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서라도 소중히 다루고 싶을 만큼 내게 마지막 캔들이 가치 있는 것은 결코 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마지막 캔들에는 내가 평소 우스갯소리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추억,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캔들은 내 손에 남아 메시지와 더불어 수많은 사랑 중에서도 제일 아프고, 아픈 만큼 아름답다는 짝사랑의 추억을 담고 '마지막 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몇 번인가는 이것이 내가 겁쟁이였음을, 뼈아픈 지난날의 실패를, 조금 더 용기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자기변명으로 자기 위로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상기시켜 없애 버릴 것을 고민한 적도 있다.
수없이 많이 스쳐지나간 이성 중에서 둘만의 특별한 추억도 없는 그 한 사람만을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것은, 곧잘 웃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 그녀에게서 느낀 매력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밝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를 그토록 좋아했던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지우기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향기와 함께 작은 유리 병속에 간직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 외롭고 쓸쓸할 때면 위로 겸 용기를 얻기 위해 마지막 캔들을 꺼내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밴드 연습을 하거나 공연이 있고 나서는 곧잘 캔들을 열어보곤 한다. 한때는 전공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이 청력장애를 악화시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나서는 취미정도로 하고 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점차 청력장애를 갖고서는 청각적 예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면서부터는 밴드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드럼을 맡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와 적잖은 긴장감을 느낀다. 음악과 더불어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관중의 호응이 좋아 시작한 음악 활동이 내 삶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이벤트처럼 한 번씩 지나가면서부터는 공연 후의 허탈감에 또 캔들을 찾고는 한다.



영국 40대 여성,
생체공학 눈 이식으로 시력 회복해

영국에서 40대 시각장애인 여성이 생체공학 눈을 이식받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49세인 라이언 루이스는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으로 5살 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해 16년 전부터 오른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왼쪽 눈은 움직이는 빛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물의 분간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이스는 옥스퍼드대학의 존 레드클리프 병원 의료진의 제안을 받게 되었고 7개월 전 독일 회사인 '레티나 임플란트 AG'가 개발한 망막 임플란트 마이크로 칩인 생체공학 눈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7시간의 수술 끝에 오른쪽 눈에 칩을 이식한 루이스는 현재 테이블 위 정확한 자리에 포크를 놓거나 시계에 적힌 시간을 읽는 등의 일상생활을 시각을 이용해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담당한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맥라렌 교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수 년 내에 루이스와 같은 환자들을 위한 수술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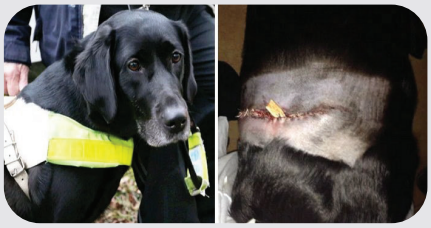
영국 안내견 미아,
시각장애인 주인 구하려다 칼에 맞아

지난 1월 28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미아가 시각장애인 주인을 구하려다 괴한의 칼에 맞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주인 소피 아스톤(Sophie Aston)은 크롤리 시의 고프트 공원에서 안내견 미아와 산책을 하던 중, 이들에게 흉기를 든 괴한이 나타났고 괴한은 시각장애인인 소피를 향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피를 보호하기 위해 미아는 괴한을 막고 싸웠으며 소피는 갑자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미아가 칼에 찔린 것을 알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아의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 데이비드 클레어(David Clare)는 미아의 목에 4~5인치 정도 깊이의 상처가 났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고 수술에 들어갔으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주인의 목숨을 구한 미아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내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슴 깊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양평 수미마을에서 겨울문화를 즐겨

1월 28일 양평에 위치한 수미마을에 시각장애인 11가정(36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각장애인 가정의 겨울 문화 체험을 위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지역사회복지팀에서 주최하고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체험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눈썰매타기, 연날리기, 달고나 만들기, 찐빵 만들기, 알밤 구워먹기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가정의 아이들은 올 겨울 따뜻한 추억이 생겼다며 즐거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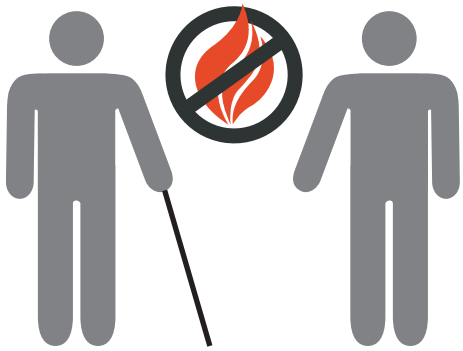
2월 3일,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지난 2월 3일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립국어원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점자규정 개정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110명의 참석자들은 이번에 개정되는 점자규정에 대한 궁금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국점자규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한글점자규정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뜨거운 차나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을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손을 살짝 손잡이에 닿게 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심성 있게 다루게 됩니다. 또한 칼이나 공구류처럼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는 물건의 손잡이 쪽을 손에 닿게 해주면 됩니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2월 187호
발행일 2016년 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